

## 협회, 어항시설물 수중조사 실시 어항안전대책 수립에 크게 기여 전망



한국어항협회가 올해 처음 수임한 어항 시설물 안전점검에 그동안 실시되지 않았던 수중조사가 포함되어 어항구조물 안전대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어항협회는 올해 실시하고 있는 국가 어항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정기점검과 함께 일부 어항에 대하여 수중조사를 실시한다.

한국어항협회는 감독 1명, 다이버 2명, 보조사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어항구조물 수중점검팀을 편성, 8월 1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건설된지 20년 이상된 4개항에서 수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항은 울산 방어진항, 전남 진도 서거차항, 전남 진도 서망항, 전남 완도 청산

도항 등 4개항으로 방파제, 물양장 등 어항 시설물에 대해 점검팀이 수중에 직접 들어가

수중 점검을 실시한다.

협회는 이와 병행하여 수중 조사시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 누락되는 부분을 막고 수중구조물의 정확한 실태를 확보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첨단장비인 멀티빔을 이용, 수중 내 어항 구조물을 측량하여 현황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어항을 대상으로 한 수중 점검은 그동안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나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완공되지 오래된 어항 순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어항시설물의 안전 대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어항협회에서는 이번 정밀점검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어항 구조물의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수산기반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며 내년에 정밀 점검 대상항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대대적 전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요일엔 수산물을 먹읍시다'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수산물 소비가 둔화되는 8월 1개월 동안, 할인점, 수산시장, 횃집 등 업계가 참여하여 대대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치는 사업이다.

이 캠페인의 진행을 맡은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3일, 10일 노랑진수산시장,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각각 발대식을 거행했고 8월 1개월 동안 이동형 홍보버스 운행, 수요일 거리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이벤트로 수산물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관련기사 2, 3면)